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주영¹, 이도영^{2*}

¹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Empathy Ability,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ew Nursing Students

Joo-Young Lee¹, Do-Young Lee^{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신입 간호대학생 225 명이다. 자가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Win 24.0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beta=0.32, p<0.001$), 공감능력($\beta=0.32, p<0.001$)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감사성향이 포함된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기여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new nursing students' empathy ability, gratitude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5 new nursing students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written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24.0 PC+ program for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rofessionalism of new nursing students were to be gratitude disposition ($\beta = 0.32, p < 0.001$), empathy ability ($\beta = 0.32, p < 0.001$),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total 34.7%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ew nursing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programs that may more correctly establis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ew nursing student, Empathy ability,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Do-Young Lee(shine@cs.ac.kr)

Received October 12, 2020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January 6,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형성된 전문직으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으로[2],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관으로, 전인간호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3].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확립은 간호를 가치 있게 세우고, 간호전문직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간호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능력을 가지게 한다[4].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것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 시기의 전공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며, 대학생 때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되어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때[5],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신입 간호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간호학 전문지식의 습득을 시작하는 신입 간호대학생이 초기부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신입간호대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하여 그에 따른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공감이란 자신보다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정서적인 감정과 상황에 일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6]. 간호학에서 공감은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의 중심으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며[7], 간호사가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만족도, 치료 순응도, 정확한 진단,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8], 대상자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간호사의 공감은 대상자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사정하고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대상자의 안녕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최근 대상자는 간호사에게 질 높은 간호의 제공뿐 아니라, 자신을 공감해주는 것도 간호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를 공감해주는 것 또한 간호의 범위이며 간호의 전문성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11]. 따라서 간호의 대상자들은 전인적 인간으로 존중 받기를

원하며 간호사의 공감적 돌봄을 요구되면서[12] 전문직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사(gratitude)는 타인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정서이며[13], 감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미덕으로 여겨 왔으며[14], 감사가 인간의 삶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따라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15]. 감사는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행복,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며[16],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함께 감사성향(gratitude disposition)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로 한 개인이 긍정적인 경험이나 결과를 획득한 것에 대하여 타인이나 주변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인지 및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17]. 감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서이지만,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에 대하여 타인과 주변에 대한 공로를 더 자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감사를 더 자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13].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감사성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긍정적이며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유연한 대인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라서 이러한 감사성향의 긍정적인 요소는 대상자를 대하는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요하며, 감사성향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급부상하여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유능하며 가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심리적 반응으로[18], 자신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이다[1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20].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한다고 하였다[21,22].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중요성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23],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말하며,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된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이 졸업 후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24].

지금까지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대학 생활 적응,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간호사 이미지 등의 개념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3,24], 세 개 이상의 심리 정서적 인자를 이용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25]. 더욱이 직업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연구는 전문한 상태로, 신입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전문직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의 긍정적 정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간호학을 배워가면서 부정적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이들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신입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의 방향설명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의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변수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위치한 1학년 재학 중인 신입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4 프로그램[26]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medium .15, 유의수준은 5%, 검정력 95%, 예측변수 5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213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입 간호대학생의 설문지 작성의 어려움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23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2부와 부적절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가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여 225부(97.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7]가 개발하고 Park[28]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관점수용, 환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하여 총 2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1점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장이다'에서 5점 '나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감능력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의 신뢰도는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6이었다.

2.3.2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17]이 개발한 The Gratitude Questionnaire(GQ-6)의 척도를 Kwon, Kim과 Leel[2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강도, 감사를 느끼는 빈도,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감사를 느끼는 범위, 한 가지 긍정적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는 밀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총 6문항으로 7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등[2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 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8]가 개발하고 Jon[30]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변안 당시 신뢰도 값은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3]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Han, Kim과 Yun[31]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에게 주로 적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신입 간호대학생에게 사용된 경우가 없어,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과 관련 도구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간호학과 대학교수 3인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92이었고, Han, Kim과 Yun[31]의 신뢰도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설문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문에 대한 질의 사항을 충분히 받고 답변을 수행하였으며, 추가 질의가 발생할 가능성에 염두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였다.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이후 폐기처리 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은 10분 가량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일반적 특성을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21~25세가 82.2%(1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적의 경우 신입 간호대학생이 아직 치뤄진 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인지한 성적이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9.3%(156명)로 과반수가 넘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2.9%(52.9%), 만족 32.0%(72명), 불만족 15.1%(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68.4%(154명)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31.6%(71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Health condition	Healthy	141(62.7)
	Normal	72(32.0)
	Unhealthy	12(5.3)
Age(years)	20	11(4.9)
	21-25	185(82.2)
	26-29	22(9.8)
	>30	7(3.1)
Perceived academic grades	Good	29(12.9)
	Fair	156(69.3)
	Poor	40(17.8)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Satisfied	72(32.0)
	Usually	119(52.9)
	Unsatisfied	34(15.1)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Yes	154(68.4)
	No	71(31.6)

3.2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연구 변수에 따른 점수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3.23±0.28점, 감사성향은 5.46±1.11점, 자아존중감은 3.08±0.50점, 간호전문직관 3.60±0.4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 of the Subject (N=225)

Variables	M±SD	Min.	Max.
Empathic ability	3.23±0.28	2	5
Gratitude disposition	5.46±1.11	2	7
Self-esteem	3.08±0.50	1	5
Nursing professionalism	3.60±0.46	2	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p)
Health condition	Healthy ^a	3.70±0.47	8.82
	Normal ^b	3.44±0.40	(.001)
	Unhealthy ^c	3.43±0.34	a)b, a)c
Age(years)	20 ^a	3.49±0.65	4.04 (.008)
	21-25 ^b	3.64±0.44	
	26-29 ^c	3.31±0.36	
	>30 ^d	3.67±0.47	
Perceived academic grades	Good ^a	3.74±0.57	4.44
	Fair ^b	3.63±0.41	(.013)
	Poor ^c	3.43±0.51	a)b)c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Satisfied ^a	3.89±0.43	7.04
	Usually ^b	3.57±0.44	(.001)
	Unsatisfied ^c	3.41±0.43	a)b)c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Yes	3.65±0.46	2.26
	No	3.50±0.44	(.02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N=225)

Variables	B	SE	β	t	p	TI	VIF
(Constant)	32.865	7.174		4.581	<.001		
Health condition	-1.520	.833	-.11	-1.825	.069	.846	1.18
Age(year)	-1.343	.913	-.09	-1.471	.143	.941	1.06
Perceived academic grades	-1.333	.913	-.09	-1.460	.146	.879	1.14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1.195	.749	-.11	-1.594	.112	.729	1.37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status	-.277	1.034	-.02	-.268	.789	.903	1.11
Gratitude disposition	.393	.091	.32	4.338	<.001	.593	1.71
Self-esteem	.028	.119	.02	.237	.813	.580	1.73
Empathy ability	.328	.059	.32	5.590	<.001	.963	1.04

Adj. R2=.347, F=13.745, p<.001 Durbin-Watson=1.938

직관은 건강상태(F=8.82, p<.001), 나이(F=4.04, p=.008), 성적 정도(F=4.44, p=.013), 대학생활 만족도(F=7.04, p<.001), 간호전문직관 교육여부(t=2.26, p=.02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4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구 변수에 따른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공감능력(r=.38, p<.001), 감사성향(r=.46, p<.001), 자아존중감(r=.3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감능력은 감사성향(r=.15, p=.024)과 감사성향은 자아존중감(r=.59,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r=.07, p=.276)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 (N=225)

Variables	EA	GD	SE	NP
	r(p)	r(p)	r(p)	r(p)
EA	1	.15(.024)	.07(.276)	.38(<.001)
GD		1	.59(<.001)	.46(<.001)
SE			1	.31(<.001)
NP				1

GD=Gratitude disposition; SE=Self-esteem ; EA=Empathic ability ; NP=Nursing professionalism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건강상태, 연령, 성적정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교육여부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간호전문직관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3.745, p<.001$),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580~.963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1.73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은 1.93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등분산성 및 정규분포성을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beta=.32, p<.001$), 공감능력($\beta=.32, p<.001$)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총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직업적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신입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과의 형성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Yang의 연구[32]에서는 5점 만점에 3.0점, Park과 Jung의 연구[7]에서는 5점 만점에 2.7점, Chung의 연구[33]에서는 5점 만점에 3.7점, Ji의 연구[34]에서는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 수준은 '중등도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ng의 연구[32]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상실습 및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실습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의 역할을 맡아 대상자의 상태를 간접 경험해 보면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모방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Yang의 연구[32]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공감 능력은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 앞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Ji의 연구[34]에서는 공감능력의 세부요소 중 인지공감능력은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간호

교육과정동안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조기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Yang의 연구[32]에서는 공감능력에 대한 임상실습 및 현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7점 만점에 평균 5.46점으로 나타났다. 일반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35]의 연구에서는 7점 만점에 평균 5.45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과 Ko[25]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Jung과 Ko[25]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이 임상간호사보다 감사성향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감사성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료환경의 급변 안에서 자신에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임상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Chol[35]의 연구에서 따르면 감사성향의 차이는 학과와 학년, 종교의 유무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간호학과 대학생이 타과에 비하여 감사성향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고,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감사성향이 높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과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이 맞도록 감사성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요시 되는 영성도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종교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종교는 자신의 자유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일기쓰기, 반성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자신의 삶 자체에서 감사를 스스로 느끼고 배양할 수 없는 것으로,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Yoo[36]의 연구에서는 평균 3.6점, Jung과 Ko[25]의 연구에서는 3.62점을 나타냈으며, 2학년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33]에서는 평균 3.2점을 나타냈다. 또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Jung[7]의 연구에서는 3.1점, Kang과 Jeong[37]의 연구에서는 3.09점을 나타냈다. 연구마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가 달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36].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7], 학년 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실습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기회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전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양 및 인문 교과목 운영이 효과적인 방법이며[37],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60점으로 나타났다.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보통의 경우 임상실습을 시작한 간호대학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이와 비교를 하였다. Kang과 Jeong[37]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64점, Kim과 Park[38]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82점, Mun과 Hwang[39]연구에서는 3.79점, Choi[40]의 연구에서는 3.9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신입 간호대학생으로 입학한지 한 달가량 된 시점으로 아직 임상실습과 전공과목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Hwang과 Shin[24]의 연구에서는 1, 2학년의 간호대학생은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여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 좀 더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보고가 본 연구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서는 학년 별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으로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면 건강상태, 나이, 성적 정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교육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검정 결과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직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과 직결되므로, 자신이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에 대하여 긍정심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입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건강하고 느끼는 대상자의 경우 이에 대한 가치 및 전문성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Jung [4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주관

적 건강상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입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감사성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에 대한 규명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Kim, Jin과 Kim[41]의 연구에서는 감사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감사성향, 행복감,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감사성향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에,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화하여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39], 감사성향과 같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긍정적인 성향의 유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신입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로[42],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그 밖에, Jeon과 Lee[4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와 임상실무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 영역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Ji의 연구[34]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관찰되는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임상실습에서의 질 높은 만족도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un과 Hwang[39]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에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로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간호학에 대한 태도 및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확인하여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2] 중요시 다루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입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간호사가 좀 더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비전을 가진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을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입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감사성향,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신입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사성향, 공감능력, 건강상태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이 감사성향과 공감능력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더 좀 더 명확성을 가지기 위하여 대상자의 확대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간호대학생의 생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An, Y. M. Kwon, M. H. Park & K. S. Choi. (2018). *Ethics in nursing profession: reflections via bioethics*.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0). *Title of Website*. Name of Site <http://kabon.or.kr/kabon02/index04>
- [3]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10.4040/jkan.2005.35.6.1091
- [4] Y. H. Yom et al. (2000). *Learning Outcomes-Based Nursing Management*. Soomoonsa: Seoul.
- [5] Y. R. Kim. (1995).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s on nursing profess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 169-181.
- [6] M. L. Hoffman. (2010).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Lewis, M., Haviland-Jones, J. M., Barrett, L. F (Eds.) *Hand book of Emotions* (3th ed, pp. 440-45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7] E. A. Herdman. (2004). Nursing in a post emotional society. *Nursing Philosophy*, 5(2), 95-103. DOI: 10.1111/j.1466-769X.2004.00169.x
- [8] J. H. Park & S. K. Jung. (201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98-7707. DOI : 10.5762/KAIS.2015.16.11.7698
- [9] J. K. Olson. (1995). Relationships between nurse expressed empathy, patience perceived empathy and patient distres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7(4), 317-322. DOI:10.1111/j.1547-5069.1995.tb00895.x
- [10] S. Brunero, S. Lamont & M. Coates. (2010).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17(1), 64-73. DOI : 10.1111/j.14 40-1800.2009.00482.x
- [11] S. H. Park & M. J. Park. (2018).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work environment on nursing work performance in clinical nurs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6(4), 175-184. DOI:10.14400/JDC.2018.16.4.175
- [12] G. R. Palos. (2014). Care, 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professional nursing: Art, science, or both.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8(2), 247-248. DOI : 10.1188/14.cjon.
- [13] R. Lazarus & B. Lazarus (1994).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4] R. A. Emmons & M. E. McCullough.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DOI : 10.1037//0022-3514.84.2.377
- [15] H. S. Chong, S. H. Ko & J. Y. Kim. (20017). Impact of empathy ability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1), 395-405. DOI : 10.14400/JDC.2017.15.11.395
- [16] P. C. Watkins, K. Woodward, T. Stone & R. L. Kolts.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1(5), 431-452. DOI : 10.2224/sbp.2003.31.5.431
- [17] M. E. McCullough, R. A. Emmons & J. Tsang.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12-127.

- DOI : 10.1037//0022-3514.82.1.112
- [18]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 D. Germain. (2000). *L'estime de soi, un passeport pour la vie*. Seoul: Hanulli., 1-175.
- [20] S. J. Lee & J. H. Yu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 589-607.
- [21] M. S. Chung. (2009).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 60-68.
- [22] B. C. Park. (2009). The methods of mor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pathy. *Holistic Education Research*, 13, 127-144.
- [23] I. O. Moon, G. W. Lee & S. H. Jeong. (2015).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1), 122-132. DOI : 10.11111/jkana.2015.21.1.122
- [24] E. H. Hwang & S. J. Shin. (2017).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97-108. DOI : 10.5932/JKPHN.2017.31.1.97
- [25] C. H. Chung, & J. O. Ko. (2018). The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Self-esteem, and Life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539-558. DOI : 10.2251/jlci.2018.18.19.539
- [26]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27] M. H. Davis.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28] S. H. Park. (1994). *Empathy*. Seoul: Hakjisa, 274-300.
- [29] S. J. Kwon, K. H. Kim, & H. S. Lee. (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177-190.
- [30] B. J. Je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Education*, 11(1), 107-130.
- [31]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32] S. H. Yang (2015)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3), 1699-1710.
- [33]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 [34] E. J. Ji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 [35] M. K. Cho. (2017) A Convergence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teful disposi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n stress cop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4), 101-109. DOI : 10.15207/JKCS.2017.8.4.101
- [36] J. K. Kim & K. H. Yoo. (2019).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26(3), 261-269. DOI : 10.5953/JMJH.2019.26.3.261
- [37] M. R. Kang & K. S. Jeong. (2020). Effects of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cognitive emotion control strateg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53-361. DOI : 10.14400/JDC.2020.18.6.353
- [38] Y. S. Kim & Y. S. Park. (2020). Study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of nurs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765-777. DOI : 10.2251/jlci.2020.20.14.765
- [39] M. Y. Mun & S. Y. Hwang (2016).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8), 403-418.
- [40] H. J. Choi. (2017).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68-77. DOI : 10.5762/KAIS.2017.18.6.68
- [41] J. Y. Kim, B. R. Jin & J. H. Kim. (2014). The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and gratitude on communicative competence :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4), 238-262.
- [42] Spiro H. Commentary. (2009). The Practice of Empathy. *Academic Medicine*, 84(9), 1177-1179.
- [43] S. Brunero, S. Lamont & M. Coates. (2010).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17, 65-74.
- [44] E. S. Jung. (2020). Influenci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 339-355. DOI : 10.22251/jlcci.2020.20.17.339
- [45] W. H. Jeon. & K. R. Lee. (2016).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happin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30(3), 434-444.
DOI : 10.5932/JKPHN.2016.30.3.434

이 주 영(Joo-You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2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질관리
- E-Mail : jylee@snjc.ac.kr

이 도 영(Do-Young Le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 E-Mail : shine@cs.ac.kr